

## 신설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2월 15일(금) 첫 방송!

김남길 × 김성균

사제와 형사의  
타격태격 공조 수사

꼭 찬 재미와 카타르시스 제공

주 52시간 근무 시대, 시청자들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신설되는 SBS 금토드라마의 첫 포문을 익스트림 코믹 수사극 〈열혈사제〉가 연다.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가 주연을 맡아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바보 형사가 살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 수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굿닥터〉, 〈김과장〉을 집필한 박재범 작가와 〈편지〉, 〈귓속말〉을 연출한 이명우 PD가 손잡고 부패한 지역 카르텔에 맞서는 사제와 형사의 이야기를 희화적으로 풀어내 금요일, 토요일 밤 짜릿한 웃음과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남길이 연기하는 가톨릭 사제 김해일은 일반적인 사제의 이미지를 여지없이 깨부순다. 까칠한 성격과 말투는 기본, 한번 불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제 불능 캐릭터다. 과거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제가 되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품고 있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김성균이 맡은 구대영은 강력계에 몸담고 있지만, 형사로서의 능력은 전혀 없다. 몸보다 말로 승부를 보는 '썰보이'며, 사람만 좋을 뿐 눈치도 없고 허세만 살아 있어 동료들에게조차 무시당한다. 구대영은 드라마에서 코믹 파트를 담당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동시에 김해일과의 공조를 통해 '썰놈'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이하늬가 맡은 박경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팀 검사로, 현란한 말발과 깡, 전투력을 지녔고 일 처리 능력도 만점, 거기에다가 빼어난 미모까지 겸비했다. 상명하복을 지키며 권력을 위해 내달리는 데 주저함이 없던 그녀 앞에 해일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

금새록은 강력계 신입 형사 서승아로 분해, 김해일 구대영과 힘을 합쳐 활약한다. 이들과 함께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고담구의 구청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검사, 사이버 교주, 조폭 등 공생관계로 똘똘 뭉친 '악의 카르텔'로 고준, 이문식, 김원해, 정영주, 김형목, 한기중 등이 출연한다.

고준은 전직 조폭 보스이며 현재는 무역회사 대표 행세를 하는 황철범 역을 맡았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청년회장같이 보이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카르텔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인물이다.

이문식은 엄청난 인력, 자금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이버 교주 기용문 역할을 맡았다. 김원해는 구담구 내 러시아 구역의 갱스터 블라디미르 고자예프를 연기하며, 고담구 구청장 정동자 역은 정영주가 맡았다. 또 부패 경찰서장 남석구 역은 정인기, 카르텔과 결탁한 부장검사 강석태 역은 김형목, 카르텔의 비호를 받아 정치 생명을 유지해가는 3선 국회의원 박원무 역은 한기중이 맡았다. 이들의 각양각색 캐릭터 플레이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해 시원하게 분노를 날리는 사제와 형사의 콤비 플레이 〈열혈사제〉는 2월 15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SBS 금토드라마

# 열혈사제

The Fiery Priest





## 단숨에 화제 중심에 서다! 새 월화 <해치> 탄탄한 스토리×힘 있는 연출\_ 월, 화 밤 채널 고정 예감

새 월화드라마 <해치>가 2월 11일(월) 첫 방송되었다.

<해치>는 SBS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통 사극으로, 천한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연잉군 이금(정일우 분)이 열정 가득한 과거 준비생 박문수(권율 분), 사헌부 열혈 다모 여지(고아라 분), 저잣거리의 떠오르는 월패 달문(박훈 분)과 힘을 합쳐 대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담은 48부작 드라마이다. <이산>, <동이>, <마의> 등 사극 흥행불패 신화의 주인공 김이영 작가와 퓨전 사극 <일지매>, 미스터리 스릴러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등을 연출한 이용석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영조의 젊은 시절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또 작품마다 조선시대 전문직을 다뤄 사극의 깊이를 더해온 김이영 작가가 <해치>에서 조선시대 검찰청인 '사헌부'를 드라마 최초로 다루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첫 회에서는 보위 싸움이 치열하고 시국이 어지럽던 시절 사헌부 관원(해치)들의 아다시(고위 관리의 비리 고발)를 갈등의 시발점으로 삼아 몰입도를 높였다. 탄탄한 스토리와 힘 있는 연출로 <해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통 사극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키며 단숨에 2049 시청률 3.0%(1회), 3.6%(2회)를 기록했다.

정일우는 무수리 몸에서 태어난 왕자 연잉군 이금으로 분해 제대 뒤 첫 드라마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 권율은 열정과 의기가 넘치지만 감찰 시험에 열 번이나 낙방한 2% 부족한 인물 박문수 역을 맡아 가볍고 코믹한 연기로 극



에 활력을 주었다. 고아라 역시 무술과 수사에 능한 사헌부 다모 역을 맡아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극에 녹아들었다. 여기에 연잉군과 왕위를 놓고 다투는 사이코패스적 인물 밀풍군 역의 정문성, 조선을 거머쥐려는 야욕에 불타는 노론의 수장 민진현 역의 이경영, 월패 조직의 우두머리로 연잉군의 조력자가 되는 달문 역의 박훈, 남인 출신으로 권력을 위해 노론 민진현의 수족이 되는 사헌부 감찰 위병주 역의 한상진에 이르기까지 주조연 할 것 없이 구멍 없는 연기를 예고해

<해치>는 2019년 SBS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드라마로 손색 없는 위용을 보였다.

<해치>는 1, 2회 방송내내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갯이영표 민보사극'의 출격을 제대로 알렸다.

권력의 양면성과 정치사가 풍자와 해학 아래 묵직하게 그려질 <해치>는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 <미추리> 시즌 2\_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로 찾아온다 첫 '스페셜 멤버'로 전소민 합류\_ 2월 15일(금) 밤 11시 10분 첫 방송

유재석과 8인의 스타들이 미스터리 추적 마을에서 함께하는 '24시간 시골 미스터리 예능' <미추리 8-1000>(이하 <미추리>) 시즌 2가 2월 15일(금) 다시 찾아온다. 시즌 1이 기존 관촬예능과는 또 다른 재미로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만큼 시즌 2에 대한 기대도 크다.

시즌 2의 미스터리 마을은 어촌이다. 집 안에서 밀물 때면 멋진 바다가,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보인다. 산골마을에서 펼쳐진 시즌 1에서 하천에서 고기를 잡거나 아담한 밭에

서 배추와 무 같은 채소들을 채집했다면 시즌 2에서는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조업한다. 점심식사에도 신선한 해산물을 요리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멤버에도 변화가 있다. 시즌 2에는 해외 스케줄로 인해 합류하지 못하는 제니를 대신하여 매회 특급 게스트들이 출연한다. 첫 회 게스트는 예능 치트키 전소민이다. 전소민은 현재 <런닝맨>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에 <미추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

다. 시즌 2의 관전 포인트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멤버들의 추리 실력이다. 시즌 1에서 낯선 힌트에 고전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멤버들 모두 각자 노하우가 생겼다. 정철민 PD는 "힌트 도구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해제하며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추리게임의 묘미가 살아났다"고 전했다. 시즌 1의 재미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아름다운 어촌의 모습과 업그레이드된 게임을 담은 <미추리> 시즌 2는 2월 15일(금) 밤 11시 10분 첫 방송된다.



양세형

김상호

임수향

손담비

유재석

강기영

송강

장도연



## <두시탈출 컬투쇼> 라디오 청취율 전체 1위!

SBS 파워FM, 16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청취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월 7일(목)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9년 1라운드 MRS(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가

10.9%(주중 수치, 주말 11%)의 청취율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하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그런가 하면 파워FM은 채널별 점유청취율 23.2%로 16라운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5년 2라운드부터 무려 4년간 1위를 지킨 셈이다. 13-59세 채널 점유청취율 역시 26.2%로 1위를 기록하며 적수 없는 '라디오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컬투쇼>를 비롯해 <김영철의 파워FM>, <봄봄파워>까지 파워FM의 프로그램이 3개나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순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조정식의 편편 투데이>, <박선영의 씨네타운>, <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소현의 러브게임>, <배성재의 텐>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시대에 1위를 석권하며 확실한 우위를 지켰다.

한편, 이번 조사는 1월 8일부터 1월 21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8%p다. 청취율 조사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 SBS 플러스 <더쇼>, <윤도현의 더스테이지>

뜨거운 관심 속 첫 방송



SBS플러스가 새해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글로벌해진 음악 프로그램 <더쇼>, <윤도현의 더스테이지>를 선보였다.

<더쇼>는 올해부터 아시아 20개국 K-POP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기존의 한국, 일본(TBS) 외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몽골, 브루나이, 동티모르, 미얀마,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 제도, 팔라우 등 총 20개국에서 동시에 생방송된다. 1월 22일(화)에 방송된 <더쇼>에는 이민혁(비투비), 여자친구, 엔플라잉, 라붐, 아스트로, 크나큰, 네이처, 루커스, 보이스퍼, 페이버릿, VERIVERY, 원어스, ATEEZ, 그레이시, MustB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더쇼>는 매주 화요일 SBS플러스, SBS funE, SBS MTV에서 오후 6시부터 방송된다.

<윤도현의 더스테이지>는 올해부터 윤도현이 새로운 MC로 나선다. 1월 17일(목)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첫 녹화 현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객석을 가득 채운 2500여 명의 관객은 윤도현이 무대 위에 등장하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 뜨거운 함성을 보냈다. 이에 윤도현은 즉석에서 무반주로 '사랑 TWO'를 선사하며 화답했다. 새해 첫 초대 가수인 이은미 역시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윤도현의 더스테이지>는 SBS funE, SBS MTV, SBS플러스 UHD 채널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만나 볼 수 있다.

인터뷰  
이 사람



“양쪽 신경이 모두 바나하는 <뉴스 브리핑>, 제대로 가고 있다”

### -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앵커 주영진 부장(보도제작팀)

<뉴스 브리핑>을 맡은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여기까지 올지 몰랐다. 2016년 4월 25일 <3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2017년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으로 바뀌었다. 종편 채널들이 선점한 시사 뉴스 토론 시장에 지상파 최초로 도전해 지금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다. 앵커 혼자서 두 시간을 끌어가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 데다 SBS 최초로 앵커의 이름을 걸고 하는 첫 TV 시사뉴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책임감도 크다. 제목의 무게를 느끼며 매일매일 앵커석에 선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현장 불박이로 안정감 있는 리포트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기자 생활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다. 당시 시경 캡이었던 성희용 선배를 비롯해 선배와 동료들을 믿고 겁 없이 덤볐다. 기자 주영진을 성장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붕괴된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두 시간 동안 구조상황을 중계하고, 생존자가 발견될 때마다 달려가 취재하고 방송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뒤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했는데, 집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티 지진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서너 명의 취재기자들을 보낸 경쟁사와 달리 혼자서 일주일 동안 취재하고 리포트하고 <8 뉴스> 위성 연결까지 해냈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취재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취재 경험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 석방은 기자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정치부 기자로 만 11년을 뛰었는데 지금의 여야를 절반씩 출입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취재와 방송만 열 차례가 넘는 듯하다. 정주영 회장의 소

떼 방북부터 제1차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첫 관광, 개성공단 가동, 이산가족 상봉, 남북 협상도 여러 차례 취재했다. 오바마가 모두 이겼던 두 차례의 미국 대선 취재도 잊을 수 없다. 그 경험들이 <뉴스 브리핑> 진행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

팀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김경희 팀장을 중심으로 4명의 기자가 주요뉴스와 자막, 그날 다룰 아이템들을 정한다. 작가는 모두 8명이 있다. 정치를 맡은 1팀과 그 밖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2팀으로 나뉜다. 여기에 진행팀과 편집팀, 인턴까지 24명이 일하고 있다. 오전에 출근해 그날 아이템을 정하고 매일 두 시간씩 방송하는 쉽지 않은 일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은 매일 해내고 있다.

<뉴스 브리핑>을 자랑한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시사비비를 지향한다. 고루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 팩트를 충실하게 다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애쓴다. 정치 아이템에서 특히 그렇다. 가끔 댓글을 확인해보면 양쪽에서 모두 비난한다. 어느 한 진영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사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생각한다.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지만 3년의 세월이 축적되면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외부의 평가가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뉴스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게스트를 만났고 수많은 사건을 다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게스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슴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어린이, 백 년을 살아보신 김형석 교수님, 배우 정우성 씨, 노래꾼 장사의 선생, 시인 김용택 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월드컵 대표 선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



치인들,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과 만났다. 이분들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자성, 경청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인터뷰는 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50분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다.

다른 지상파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겼고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공세도 거세다. <뉴스 브리핑>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현장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담과 팩트, 관점,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장을 23년 뛰다가 원 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앵커 자리에 앉았다. 지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쓰고 있다. 현장을 뛰는 SBS 기자들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을 잘 아는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담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대표 아이템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앵커가 잘생기지 않았어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믿을 수 있고, 공정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안한 친구 같은 시사 뉴스 프로그램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믿는다.



창사특집 <운인가 능력인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손정민 PD 류영우 PD 방통심의위 강상현 위원장 진선유 작가 김예슬 작가

SBS 창사특집 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공정성 전쟁>(연출: 류영우/이하 <운인가 능력인가 >)이 1월 23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운인가 능력인가>는 우리 사회 청년층의 현주소를 '공정성'의 개념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여러 행동경제학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운과 능력을 공정하게 나누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SBS 스포츠 '친절한 방송 세미나' 개최



SBS스포츠는 1월 21일 (월) 상암동 프리즘타워 11층 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방송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SBS스포츠 캐스터 및 아나운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연사로 초청된 시각장애인연합회 홍보팀 양남규 이사와 한국 웹 접근성 센터 소장 김병주 대표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시청하는 방송에 대해 설명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남규 이사는 "시각장애인은 귀로 듣는 것을 본다고 표현한다"고 밝히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방송으로 교감할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아나운서 등 관계자들은 "일반적이라고 여겼던 중계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시청자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시각장애인 친화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볼링동호회 TEAM SPLIT\_ 하루의 스트레스를 공과 함께 날린다!

- 볼링동호회 총무 조경용(편성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링

2017년 겨울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우리 볼링동호회 만들 어볼까?"라는 말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3월 SBS 볼링동호회 'TEAM SPLIT'이 창립돼 4월에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사옥 시절 볼링동호회가 존재했다고 하니 재창립이 되겠죠.

"볼링을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회사 내 다양한 사람과 친목을 다지고 싶어서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조경용 총무(편성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데다가 전문 강사는 따로 없지만,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반적으로 동호회원들의 실력이 조금씩 향상하고 있습니다.

"잘 치지 못해도 배우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즐겁게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더 많은 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준경 회원(편집기술팀)

함께해서 재미있는 볼링

공을 내려놓는 묵중한 소리에 이어지는 경쾌한 타격음! 곳곳에서 있던 열 개의 볼링 핀이 와르르 쓰러집니다. 전광판에 점수가 뜨기도 전에 공을 던진 사람이 뒤돌아 두 팔을 뻗고 동호회원들은 환호하며 손바닥을 마주칩니다. 일련의 소리에 더해 양옆의 레인에서 쉴 새 없이 공 굴리는 소리가 오버랩됩니다.

"복잡복잡 시끄러운 와중에도 볼링 핀 쓰러지는 소리가 몹시도 경쾌해 이 맛에 하는구나 싶습니다" - 변종민 회원(A&T 아트3팀)

이번에는 약간 사선으로 흐르던 공이 레인을 벗어나 거터에 떨어집니다. 공을 던진 이가 머쓱한 얼굴로 돌아서자 동호회원들은 괜찮다고 격려하며 손바닥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실력에 상관없이 함께하기 때문에 몇 배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 김성숙 회원(광고팀)

통쾌한 저녁! 스트레스도 '스트라이크!'

TEAM SPLIT은 현재 2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A&T(2명)와 여성 회원(2명)이 적은 부분과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신입회원이 많이 들어와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TEAM SPLIT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정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JS 상주 리그전'이라는 볼링장 자체 리그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동호회원들의 실력이 수준급으로 향상되면 서울시 직장인 스포츠리그 볼링대회 같은 유수의 외부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루의 피로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통쾌한 저녁! 그리고 함께해서 더 좋은 동료, 더 행복한 시간! 함께하지 않으시렵니까?

※ TEAM SPLIT 정기전: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 JS 상주 리그전: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 문의: 편성팀 조경용 & 광고팀 최정민